

# 역사속 과거로의 여행, 실크로드



걷는자의 꿈, 실크로드  
글 사진 문운정  
바움 펌  
1만7500원

저자인 작가 문운정을 아는 이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무엇인가를 찾아 부단히 길 떠나는 사람 같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을 찾아 떠나는 저자의 역마살은 자신의 태생과도 무관하지 않다. 저자는 어린 시절 유적지가 지천에 널려 있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태어나 반월성, 안압지 등을 열심히 쏘다녔다. 사실 무대만 세계로 넓혀진 것이 아니라 지금이나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바람처럼 길 떠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그런 저자가 이번에는 실크로드를 다녀와 그 여정 견본 감상을 글과 사진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실 요즘같은 글로벌 시대에 해외여행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저자가 여행한 실크로드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발길이 그리 빈번하지 않은 곳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다. 쉽게 가볼 수 없는 곳에 대한 동경심 때문인 것 같다.

이 책의 주 무대인 실크로드(Silk Road)는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Richthofen)이 처음 사용했다. 이는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 간에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정치·경제·문화종교를 이어준 교통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장안(지금의 시안)에서 타클라마칸사막, 파미르코원, 중앙



란주 병행사의 부처님 열반상 모습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진다.

아시아 초원, 이란고원, 터키 이스탄불을 지나 로마에까지 이르는 길을 지칭한다.

실크로드가 처음 열린 것은 전한(前漢) 때다. 한 무제(武帝)는 대완국, 오손국, 대월지국과 같은 서역의 여러 나라와 동맹해 북방의 흉노를 제압하고자 했다. 그는 장건(張騫)에게 이 임무를 맡겼는데, 실로 십수 년이 넘어 서야 비로소 서역 경영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실크로드는 상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동서 문화의 교류라는 면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실크로드는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충돌이 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해 상생해온 길이며, 동서남북을 소통시켜 과거를 현재로 이어왔다.

저자의 실크로드 여행은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출발한다. 이어 이슬라마바드, 탁실라, 카라코람하이웨이, 길기트, 훈자마을, 소스트를 거쳐 탁스쿠르칸, 카슈가르, 우루무치, 타

클라마칸사막, 투루판, 둔황, 란주, 천수, 그리고 시안에 이른다. 물론 이 책에서 이란고원과 터키 등에 이르는 과정은 제외됐다. 하지만 비단길의 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실크로드를 직접 걸으며 자신의 감정과 상상력을 동원해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실들을 꼼꼼히 기술한다. 단순히 실크로드에 대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작가 특유의 감정과 상상력을 통해 실크로드의 진면목을 파악하게 해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실크로드 여행은 여행자로 하여금 철저히 과거에 머물게 한다고 설명한다. 노획한 구조물이 들려주는 노래, 희노애락의 회한이 주름마다 새겨진 수천 년 전의 미라, 그리고 여행자 자신이 간직한 추억을 다 드러내기도 벅한 그 무엇인가에 대한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미래를 향한다는 역설적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저자가 이 책에서 들려다본 실크로드는 마치 인간의 운명과 너무도 닮아 있다.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기쁨과 눈물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과거와 현재의 영역이 교차한다. 거기서 저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국 우리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깨달음을 여행지 도처에서 알려준다.

여정에서 만난 불교유적을 보며 작가는 단상에 빠지곤 했다. 라호르박물관서 만난 ‘단식하는 붓다’ 상 앞에선 부처님의 움푹 파진 두 눈을 응시하며, 한 인간으로서 윤회의 사슬을 끊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을까를 생각한다. 한족, 회족 등 40여개 민족으로 이뤄진 인구 300만명의 대도시인 란주의 병행사서 목격한 부처님 열반상 앞에서는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은 불행이자 축복이라 생각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상기하며, 세상의 어떤 고평도 열반에 든 부처님 얼굴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동안 실크로드 관련된 책들은 많지만, 대다수는 중국 시안에서 둔황에 이르는 정보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실크로드에 의지해 삶을 살아간 사람들과 문명의 흔적들을 생생히 보여줘 실크로드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책에 실린 저자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 자료도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준다. 책을 덮고 나면 마치 과거 역사의 시간속 여행에서 돌아온 느낌이 든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5번 국도서 만난 사찰과 사람들

감상과 현장 자료 꼼꼼하게 기록

추억의 길을 거닐다, 5번국도

최우식 지음 | 멘토 펌 | 1만5천원



이 책은 저자가 5번 국도를 여행하며 만난 길과 사람의 이야기다. 집시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던 저자 최우식(철강 회사 CEO)은 5번 국도 걷기여행을 하며 느끼고 보고 체험한 것들을 사진과 함께 이 책에 담았다.

주말을 활용하며 1년간 5번 국도를 여행한 저자는 말한다.

“2011년 1월에 시작한 여행은 철서, 영산, 창녕, 현풍, 대구, 의성, 안동으로 이어지고 시간이 경과하며 목적지가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는 걸어서 의성, 안동을 지나고 풍기, 단양, 제천, 원주로 이어지며 대중교통과 승용차를 더러 이용했다. 의성에서 안동까지 30킬로미터 남짓한 거리를 온종일 걷기도 했다”고.

봄에는 걸었고, 여름은 달렸으며, 가을은 즐겼고, 겨울은 맞이했다. 너도 나도 해외로만 나가는 요즘 우리나라에도 가볼 만한 여행지가 많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준 저자의 노력이 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다.

저자가 만난 것은 비단 국도만이 아니었다. 그는 고분을 만나고 도시를 만나고 석탑을 만나고 사람을 만났다. 5번 국도에 강과 산이, 부처와 예수가 있었다.

독을 보며 걸었고 산을 지나 걸었고 부처를 만나며 걸었다. 걷기여행을 하며 방대한 지역을 돌아볼 땐 택시도 이용했고 위험한 구간엔 버스를 택하기도 했다. 그가 보며 걸으며 꼼꼼하게 기록한 정성스런 자료들을 엮볼 수 있다.

혼자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다니기도 했다. 아내를 위해 급히 경로를 수정했어도 전혀 부족함 없는 구성은 그의 사전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

절마다 다른 일주문, 불이문, 천왕문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저자의 유식함은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다.

책만 봐도 절을 갔다 온 것 같은

작가를 할 정도의 글쓰시는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출발하기 전에 철저히 경로를 짜고 사전조사를 미리 하는 그의 부지런함이 깔끔하게 책 곳곳에 정리되어 있다.

저자가 다닌 경로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해놔서 그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을 수도 있게 했다. 친절한 택시기사를 만나 계획이 없던 곳도 둘러보는 여유로움은 여행의 맛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 가슴을 설레게 했던 추억을 가지고 여행을 계획한 저자는 여행사와 인터넷자료들이 넘치는 이 시대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글로 적고 순수하게 사진으로 찍었다. 그는 사진작가도 아니고 글을 화려하게 쓰는 글쟁이도 아니지만 길과 어우러진 풍경을 보는 눈은 전문가라고 할 만하다.

저자가 꼼꼼히 챙겨본 것 중에 하나가 탐이었다. 원래 탐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 놓은 곳이다. 그곳에 부

## 1년간 주말활용해 여행

봉정사 등 10여 사찰도 답사

답 역사적 배경 조사해 담아

처가 계시다는 의미로 본다면 탐의 재료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신세동(범흥동) 7층 전탑, 범흥사지 3층 석탑, 대웅전 5층 석탑, 위라리 7층 석탑 등 각 탐마다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자료들을 이 책에 담았다. 석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여행 하며 둘러본 사찰 화엄사, 봉정사, 송림사, 부석사, 구인사, 문수암, 보현암, 송광사, 수타사 등의 일주문과 불이문 그리고 천왕문은 제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사찰에 들어가는 첫 문을 일주문이라고 한다. 모든 진리가 하나이며 이곳을 지나면 속세를 떠나 불국정토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모습은 다르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지붕의 모습은 비슷하다. 일주문을 지나면 사천왕들이 지키는 천왕문이 나온다. 이 사천왕들의 표정도 사찰마다 다르다.”고 사찰을 둘러본 감회를 이 책에서 솔

회한다.

김주일 기자

#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 위한 행복법문

진리의 화원

덕현 스님 지음 | 법화 펌 | 1만3천원



회화와 고통이 거듭되는 중생의 삶 속에서 허겁지겁 속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전하는 참 행복의 메시지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저자는 前 성북

동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이다. 스님은 우리를 울아 때고 가두는 방식은 정당하지 못하며, 누구나 그 내면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오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뜻과 불도를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힘입어, 덕현

스님이 깨달은 바와 생각들을 이 책에서 차분히 정리했다.

침묵의 나무 그늘처럼 지친 나그네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쉬게 하고, 열린 가슴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진리의 화원에서 덕현 스님의 잔잔한 음성엔 향기가 되어 전달된다. “행복하라, 그러나 행복을 구하지는 말라. 구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며, 두드릴 필요도 없으니 그 문은 본래 열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덕현 스님은 몇해 전 입적하신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의 사좌자다. 덕현 스님은 법정 스님 입적 후 결립없이 살았던 스승처럼 길상사 주지직을 내놓고 떠났다. 이후 지난해 1월 수행공동체 법화림을 창립하며 회원들과 함께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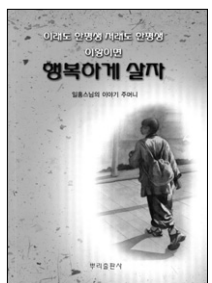
이 책은 스님이 길상사 주지 시절의 법문과 법화림 수행대중들에게 전했던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김주일 기자

# “남의 허물을 드러내려 하지마라”

행복하게 살자

일홍 스님 지음 | 뿌리 펌 | 1만2천원



부처님께서 10대 제자중 한사람인 우파리에게 ‘남의 허물은 드러내려 하지마라’고 하셨다. 자신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 ‘저 나 잘하지’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면서 제 잘못은 반성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주면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는다. 즉 흔히 자신부터 잘 다스리고 삼가는 것이 수행의 첫 걸음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선방에서는 ‘조고각하(照顧脚下)’란 말을 자주 쓴다. 자신을 먼저 알고 남을 보라는 의미다.

광명시 반야암에 주석중인 저자 일홍 스님도 책 머리에 ‘조고각하(照顧脚下)’를 올렸다. 이 책에서 들려주고 싶은 핵심인 “남의 허물을 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허물을 비취보는 성숙한 사람이 되자”는 뜻에서다.

30여년간 도심 한 편에서 포교 해온 일홍 스님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인생에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도들에게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것들을 책으로 묶었다”고 말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조고각하’ ‘수하좌’ ‘금구설’ 이다. 이중 ‘수하좌’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애착을 끊기 위해 나무아래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잡인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풍부한 예화가 곁들여져 있어 이해하기 쉽고 재밌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탐심을 없애고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한다면 행복하게 살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 김주일 기자

##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사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슝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 활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